

中 작심 발언 “美 군사도발 좌시 않겠다”

남중국해·대만 작전 반발 무력 문제 촉발 갈등 악화 중국 기관지 사평 통해 경고



미국 B-52 전략폭격기

미국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비행하고, 미국이 중국의 ‘얕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작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력 문제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지역의 군사도발을 좌시하

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6일 ‘미 군함, 대만해협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평을 통해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한 도발을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과 분쟁을 벌이길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도발에

는 반드시 반격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상이자 원칙”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대만해협이 국제 항로이지만, 미국 군함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특별한 지역 정치적 함의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분명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며 “대만해협은 중국과 가장 근접해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해 대표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함은 될 수 있으면 대만해협에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이라며 “특히 주동적으로 와서 물을 흐리는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연일 미국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에 이어 5일 정래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 중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를 확실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미관계와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미·중 ‘대만 표기’ 갈등 항공사는 괴로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 표기 문제를 놓고 마찰을 내면서 미 정부가 중국 항공사들에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수정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관리들이 유니타이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의 웹사이트 지도에 대만을 중국령으로 표기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이들 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지난 4월 25일 외국 주요 항공사 36곳에 공문을 보내 대만과 홍콩, 마카오가 중국과 별개 국가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표현을 한 달 안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미 배약관은 5월 초 서명을 통해 중국의 이런 요구를 ‘전체주의적 난센스’(Orwellian nonsense)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중국 측에 말할 것을 자국 항공사들에 주문했다. 최근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44개 외국 항공사가 대만을 중국 자치령으로 수정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 항공사들 중국 요구를 양육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자나니는 관측을 낳았다. 이 중 18개 항공사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표기를 이미 고쳤고 26개사는 내달 25일에 표기 수정이 마무리된다고 중국 민항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일 방중 푸틴 “관련국들, 북한 안전보장해 줘야”

“김정은 태도 변화 나도 놀라 북미회담 성공 최선 다할 것”

오는 8일 중국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관련국들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8~10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은 중국 중앙광파전시와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매우 기대한다”면서 “러시아도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일치하며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최근 중국이 역대 정세 변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한 데 대해 러시아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 및 핵 실험을 중지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는 역대 긴장 정세 완화를 위해 기쁜 전례 없는 노력이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내디딘 중요한 한 걸음이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오스트리아 총리는 러시아를 좋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 3월 재선에 성공한 뒤 첫 유럽 방문국으로 오스트리아를 선택했다. 중립국인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말 우파-극우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쩍 친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양쪽의 밀월 관계에 유럽연합(EU) 다른 국가들도 비척 신경이 곤두서 있다. /연합뉴스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이런 안정 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조차와 시행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관련국들이 안전보장 제정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는 용기 있는 성숙한 결정을 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를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긴장 완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솔직히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북핵 문제 외톨이 될까...아베 방미

‘대북 최대 압박·일본인 납치 해결’ 요구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팬 패싱(일본 배제)’ 우려를 없애기 위해 6일 방미 길에 오른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화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으로 출발해 7일(일본 시간 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전 양국간 대북 공조 또는 연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50여일만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미국시간)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의를 물을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왔던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만 홀로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자 국내에서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도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단계적 비핵화를 옹인하고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을 당연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황해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항을 일부 받아들이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핵·미사일·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거나 자국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기간 싱가포르에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가나시 기겐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파견해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도 계속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자동차, 기타.